

전북경찰, 긴급체포 석방률 49.7%

전국 평균 40.1%보다 높아... 소병훈 의원, "전북청 문제 심각하게 인식해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바라"

전북경찰이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무고한 사람을 구금한 뒤 석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 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방경찰청이 긴급체포 뒤 석방한 비율은 49.7%였다.

전국 평균 긴급체포 석방률 40.1%보다 높은 수치다.

지난해 전북청 긴급체포는 225건이지만 이 중 141건(62.7%)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했다.

긴급체포 10명 중 4명은 영장조차 청구하지 않은 것이다.

영장을 청구한 141건 중에도 28건은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

도내 전체 긴급체포자에 대한 영장 발부는 113건(50.2%), 석방은 112건(49.8%)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2명 중 1명의 무고한 사람을 구금한 것이다.

더구나 석방은 영장신청 없이 이뤄지고, 구금됐던 사람에 대한 배상이나 보상 같은 조치도 없었다.

긴급체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중죄를 범했다고 의심한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인멸과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제도다. 피의자는 긴급체포되면 48시간 동안 구금되고, 48시간 이내에 경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청구하더라도 발부되지 않으면 석방된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 9월 경찰개혁위원회가 수사과정에서 긴급체포 남용을 우려하며 사후 체포영장 의무화, 긴급체포 전 사전승인 의무화, 사전승인 없는 긴급체포 시 적정성 심사 등을 권고했다"면서 "수사기관 업무 특성상 고충도 이해되지만 석방률이 50%라는 것은 문제가. 전북청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해 인권경찰로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시



국정감사 받고 있는 전북경찰청 23일 전북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포되면 48시간 동안 구금되고, 48시간 이내에 경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청구하더라도 발부되지 않으면 석방된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 9월 경찰개혁

위원회가 수사과정에서 긴급체포 남용을 우려하며 사후 체포영장 의무화, 긴급체포 전 사전승인 의무화, 사전승인 없는 긴급체포 시 적정성 심사 등을 권고했다"면서 "수사기관 업무

특성상 고충도 이해되지만 석방률이 50%라는 것은 문제가. 전북청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해 인권경찰로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시

조영호, TPO '도시 관광 경영자' 상

전주시 관광마케팅팀장... 마케팅 활동사례 공로 인정

전주시 공무원이 아시아·태평양 도시관광진흥기구(TPO)가 선정한 2017 베스트 도시 관광 경영자상을 수상했다.



시에 따르면, 경남 통영시 개최된 제8회 TPO총회 베스트 어워드에서 도시 관광 발전을 위해 우수한 직무를 수행한 도시정부 직원에게 수상하는 '베스트 도시 관광 경영자' 상에 조영호 전주시 관광마케팅 팀장(사진)이 선정됐다.

조 팀장은 지난 2006년 9월부터 지금까지 전주시 관광홍보팀과 관광마케팅팀을 맡아 12년째 근무하면서 △2010년 국제슬로시티 지정 △2016년 국제슬로시티 재지정 △2010년 전주한옥마을 한국관광의 별 수상 △2011년 한국관광 으뜸명소 △2012년~2016년 한국관광 100선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전통문화관광자원화사업 △테마관광 10선 △행정자치부 브랜드세계화사업 등 도시관광활성화 관련된 다양한 국가공모사업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선정됐다.

지난 2015년 전주대학교에서 관광학 박사학위를 받은 조영호 팀장은 관광관련 관광박람회 현장 마케팅 활동사례로 2010년 내나라 여행박람회 최우수홍보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2013년 지역희망박람회(행정자치부 주관) 도시 관광 우수사례 발표, 2015년 부산 국제관광전 최우수 부스운영상, 2016년 부산국제관광전 최우수 마케팅상, 2017년 한국국제관광전 최우수 마케팅상을 수상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비빔밥축제 홍보대사 '비비미' 귀환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전주남강유등 축제에서 전주비빔밥축제 홍보대사로 활동했던 '비비미' 유등이 비빔밥 축제 기간에 맞춰 행사장인 한국전통문화전당으로 귀환했다.

23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비빔밥 공식 캐릭터인 '비비미'가 전주남강유등 축제에서 '비비미 유등'으로 재탄생해 축제장을 찾은 국내외 수많은 관광객들에게 불거리, 즐겁거리를 제

공하고, 전주비빔밥축제 홍보임무를 성공리에 마치고 고향인 전주로 돌아왔다.

전주시·전주시 협력사업이자 영호남 화합을 위해 제작된 전주비빔밥 공식 캐릭터 '비비미' 유등은 유등축제를 주관하는 전주문화재단에서 만들어져 전주남강유등축제 기간(10.1.~10.15.)동안 축제장에 전시돼 왔다.

/김민근 기자

게임서안여성 성추행 20대 실태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2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전 4시 50분경 B(22,여)씨의 집에 찾아가 "남자 친구와 헤어지라"면서 B씨를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됐으며 2차례 만난 사이였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라 주장했지만 A씨가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상민 기자

김영록 장관, "반려견 안전관리 대폭 강화"

농식품부, 대책 수립 계획... 맹견 범위 확대 ·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 등 추진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최근 반려견 관리소홀로 인한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니,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지난 3월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목줄(맹견의 경우 입마개 포함)을 하지 않는 소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내년 3월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보다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소유자 처벌 강화 및 교육 확대, 맹견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우선, 강화된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되는 맹견의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도시견·아메리칸 핏볼 테리어·아메리칸 스테퍼드 테리어·스테퍼드 셔블 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뿐만 아니라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를 맹견의 범위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또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목줄·입마개를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높이고 위반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만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는 만큼 내년 3월부터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지금까지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형법상 일반규정에 따라 처벌해 왔으나, 앞으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하도록 국회와 협조해 조속히 근거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단체 등을 통한 소유자 대상 소양교육을 확대하고 동물병원, 공원 등 반려견 소유자의 출입이 잦은 공간을 위주로 안전관리 의무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행안부, 지자체, 관련 전문가, 동물보호단체 등이 참여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대책안을 마련키로 했다.

/뉴스시

교회 돌려 금품 훔친 50대 구속

교회를 돌려 금품을 훔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덕진경찰서는 지난 20일 특수절도 혐의로 A(51)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4일 오전 2시에 전주의 한 교회에 침입해 목회자 사무실 서랍 등을 뒤져 현금 1500만원을 절취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1650만원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종 범죄로 교도소에 다녀온 A씨는 지난 7월 출소후 교회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소에서 끼니를 때우다 신도들이 많은 것을 보고 현금이 많이 모였을 것으로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상민 기자

도공, 호스피스 완화의료지원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23일 전북대학교병원 암센터 말기환자 및 사별가족 32명을 한국도로공사 수목원에 초대하여 호스피스 완화의료 지원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다.

이번에 실시한 사회공헌활동은 지난 9월에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와 전북대학교병원 간 체결된 호스피스 완화의료 지원협약에 의한 것으로, 전북 지역의 말기환자 및 가족에게 수목원의 숲치유 프로그램 등을 통해 고통을 완화하도록 하여 참석자들이 삶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상민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